

사무엘하 2. 유다의 왕이 된 다윗 (삼하 2 장 1-32 절)

들어가기

지난 시간 한 아말렉 청년을 통해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전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한 후에, 하나님께 자신의 거처에 대해 물었고, 유다 땅 ‘헤브론’으로 돌아가라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은 돌아온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무렵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2 대 왕으로 내세우며 ‘다윗’과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아브넬’은 ‘다윗’의 신복이던 ‘요압’을 부추겨 동족간 전쟁을 일으켰고, 이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 유다 땅 ‘헤브론’으로 돌아온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1-7 절)

1) ‘다윗’은 먼저 자신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좋을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 절)

✧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 아닐까?

- 당시 ‘시글락’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

✧ 그러나 그 동안 ‘시글락’에서 바른 신앙의 교훈을 몸소 체험한 ‘다윗’은 이제부터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인으로 변했다는 것!

✧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서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다윗’을 만나게 될 것!

✧ 잠언 3 장 6 절 -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 우리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시작하고 끝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 땅 ‘헤브론’으로 귀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헤브론은?

- 유다 성읍 중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읍 + 유다 지파의 정치, 종교의 중심이 되는 성

✧ 이때 다윗은 지금껏 자신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헤브론’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2-3 절)

- 자신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 곧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함께 했고, 도움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윗’은 잊지 않고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돌아 왔었다는 것!

- 참고: 딤후 2 장 11-12 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3) 유다 사람들은 돌아온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4 절)

■ 주목해 생각할 것!

- ① ‘다윗’은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
- ②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을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
 - 곧 ‘다윗’은 무리하거나 성급하게 단번에 이스라엘 12 지파를 장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렸다는 것!
- ③ 성경 학자들
 - 하나님은 ‘다윗’에게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맡기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주셨다는 것!
 - 곧 ‘사무엘을 통한 기름부음’ -> ‘두각을 나타내는 활동들’ ->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 -> ‘유다 지파의 왕’ -> ‘이스라엘의 왕’
- ④ 예언된 약속의 말씀의 성취!
 - 창세기 49 장 10 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서두르지 말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끝까지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믿음으로 바라며, 모든 상황 속에서 성실과 인내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4) 그럼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한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나요? (5-7 절)
 - ☆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사울’과 ‘요나단’의 장래를 치러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저들을 축복하였다는 것!

■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준 내용을 주목!

- ①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축복!
 -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요 1:14,17) 이요, 하나님의 진리 속에 사는 것이 참 행복! (벧후 3:18) 이란 사실을 깨닫고 사는 성도들이 되자!
 - 벧후 3 장 18 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 ②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고 약속해 주었음!
 - 곧 ‘다윗’은 말로만 축복을 빈 것이 아니라 자신도 직접 행동으로 선행을 갚겠다 약속!
- ③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고 부탁!
 - 아마도 ‘사울’의 죽음과 관련해서 실의에 빠져 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더 이상 과거에 잡혀 실망치 말고,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라고 부탁했다는 것!
 - 그래서 ‘다윗’은 이미 ‘사울’은 죽었고, 유다가 자신을 왕으로 삼았음을 다시 강조!

2. 이 무렵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8-11 절)

1) ‘아브넬’과 ‘이스보셋’?

- ✧ ‘아브넬’ = ‘사울’의 사촌(삼상 14:50), ‘사울’의 군대장관
- ✧ ‘이스보셋’ = ‘사울’의 막내아들, ‘아브넬’의 사촌조카
 - 곧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브넬’은 ‘사울’의 충신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그는 ‘이스보셋’을 통해 자신의 정치권력과 욕심을 유지하려 했던 사람!
- ✧ 그런데 이런 ‘아브넬’의 가장 큰 잘못은 그가 하나님의 뜻, 곧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자신의 권력과 욕심을 유지하려고 조카 ‘이스보셋’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다윗’과 대적하게 했다는 것!
- ✧ 이것은 결국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것!
- ✧ 참고: 삼하 3 장 9-10 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 ✧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 인생을 맞추고 살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우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그를 따랐습니다!

■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

- ① 왜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고 ‘이스보셋’을 따랐을까?
 -
 - 인본주의적 판단 > 신본주의적 판단
- ② 이때 ‘다윗’의 반응은?
 - ‘이스보셋’을 따르는 이스라엘 지파들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오직 유다를 다스리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
 - 곧 ‘다윗’은 자기 동족을 치거나 대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

■ 여기서 주목할 것!

-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위에 있는 지는 2년 -> ‘다윗’이 유다 왕위에 있는 지는 7년 6개월!
- ✧ 학자들의 견해
 - ‘아브넬’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이스보셋’은 블레셋에게 점령당했던 땅을 다시 찾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되기까지 대략 5년의 세월이 걸렸을 것!
 - 이 기간 ‘다윗’은 유다를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며 온 이스라엘이 온전히 세워질 날을 준비하였다는 것! (참고로 당시 모든 면에서 ‘다윗’은 ‘이스보셋’에 1/10 에 불과!)

☆ 곧 하나님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불순종을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블레셋을 쫓아 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며 ‘다윗’을 도우셨다는 것!

당시 ‘아브넬’의 세력은 분명히 ‘다윗’의 세력보다 10 배나 더 강하였으나, ‘다윗’은 이에 상관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7년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신 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도록 역사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모든 말씀들은 분명히 이루어 질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항상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3. 어느 날 ‘아브넬’은 ‘요압’을 부추겨 동족간 전쟁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12-17 절)

- 1)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이 기브온의 유다 지파의 경계선까지 내려오자, ‘요압’과 다윗의 군사들도 저들을 살피기 위해 나아 왔습니다. (12-13 절)
- 2) 이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싸움을 제안하면서 동족간에 전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4 절)
 - ☆ 14 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 ☆ 그로 인해 ‘아브넬’ 편과 ‘요압’ 편에서 각각 12 명씩 24 명의 용사들이 싸우게 됨.
 - ☆ 그런데 이때 서로가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됨!
 - 그래서 그곳을 ‘헬갓 핫수림’ -> ‘칼날의 밭’ 이라 부르게 됨.

결국 부하들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미련하고 부도덕한 제안을 한 ‘아브넬’과 이를 쉽게 받아들인 ‘요압’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24 명의 용사들이 무모한 죽음을 맞게 되었고, 이는 곧 동족간의 비극적인 전쟁으로 번지며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3) 결국 어리석은 제안을 한 ‘아브넬’의 군대는 크게 패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17 절)

4. 이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도망하는 ‘아브넬’을 쫓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18-23 절)

- 1) ‘아사헬’은 누구?
 - ☆ ‘스루야’의 세 아들 중 막내 -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 저들은 ‘다윗’의 친척
 - ☆ ‘그의 발은 들노루 같이 빠르다’고 성경은 표현 -> 곧 추격에 매우 능하고 빠른 용사!
 - ☆ 그래서 도망하는 ‘아브넬’을 잡기 위해 ‘아브넬’만 보고 달렸음!
- 2) 이때 ‘아브넬’은 자신을 쫓는 ‘아사헬’에게 무리하게 자신을 쫓지 말고, 자신이 ‘아사헬’을 죽일 수 있으니 다른 병사를 쫓으며 목숨을 보전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22 절)
 - ☆ 그러나 ‘아사헬’은 포기하지 않고 ‘아브넬’ 만을 쫓았음!
 - ☆ 결국 ‘아사헬’은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음!

- 그럼 왜 ‘아사헬’은 ‘아브넬’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쫓았을까?
 - ✧ 자신의 빠른 발과 젊은 패기만을 믿고 백전노장 ‘아브넬’을 쉽게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 ✧ 또한 이 기회에 이스라엘의 군대장군 ‘아브넬’을 잡아 명성을 얻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 곧 자기 스스로 교만함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노장 ‘아브넬’의 경륜을 가소롭게 생각하여 그의 충고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덤볐기 때문이란 것!

때로는 우리의 장점이 오히려 옳음과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른들의 경륜을 무시하지 말고 원수의 충고라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쫓아 베냐민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24-32 절)

- 1) ‘요압’과 ‘아비새’는 해질 때까지 ‘아브넬’을 쫓아 기브온 거친 땅 건너 암마 산까지 갔습니다.
 - ✧ 이때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에 합류하여 베냐민 군사들과 반대편 산에서 ‘요압’을 마주하였습니다.
 - 2) 이때 ‘아브넬’은 ‘요압’에게 언제까지 자신을 쫓아 전투를 할 것이냐며 휴전을 요청했습니다.
 - ✧ 사실 싸움의 시작은 ‘아브넬’이 걸었던 것!
 - ✧ 그러나 자신의 상황이 불리하게 바뀌자 동족간 싸워서 되겠냐며 휴전을 제안했다는 것!
(개인적 견해: 요즘 북한의 전략을 보는 것 같음..)
- 이때 ‘요압’의 답변을 주목 ->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
 - ✧ ‘요압’은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싸움을 멈추기로 결정함!
 - ✧ 이런 ‘요압’의 선택은 동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분명히 잘한 선택!
- 3) 결국 ‘아브넬’과 그의 군대는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요압’과 그의 군사도 유다로 돌아오며 갑작스런 동족간의 전쟁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 4) 전쟁의 결과 다윗의 군대는 ‘아사헬’의 죽음과 함께 19 명의 군사가, ‘아브넬’의 군대는 360 명의 군사가 희생되었습니다.

결국 장난 같은 싸움이 하나님 나라의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는 비극적인 싸움이 되었습니다. 잠언 10 장 23 절은 ‘장난으로 낙을 삼는 자는 미련한 자이고, 지혜로 낙을 삼는 자는 명철한 자’ 라고 했습니다. 작은 싸움이나 분쟁 혹은 불화가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조심하고 주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나눔.